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 아르헨티나의 음유시인 아타왈파 유팡키

심 영 보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 때문에 벌어진 촛불집회는 광우병에 대한 진실공방과 함께 수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오래도록 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곳, 일촉즉발의 대치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촌철살인이 흘러나오고, 어록으로 정리되어 사람들의 입에 연일 오르내린다. 말 한 마디로 영웅이 되는 논객이 있는가 하면, 한 마디 말로 비싼 대가를 치루는 정치인들도 있고, 한 마디의 말로 국민의 마음을 위안해주는 종교인도 눈에 띈다. 흥미로운 것은 거칠고 격한 독설보다는 약간의 비틀기와 진정성에 뿌리를 둔 소박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말의 힘을 실감하는 요즘, 거친 밑바닥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민중들을 위로해주었던 라틴아메리카의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 새 노래)의 힘을 되새겨보게 된다.

> 예술가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으로써 그 본질 자체로부터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소통능력 때문에 예술가는 게릴라만큼이나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타왈파 유팡키(Athahualpa Yupanqui, 1908~1992)

이 말은 칠레의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Victor Jara)가 남긴 말이다.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무너진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회당 정권과 그 운명을 함께 했던 빅토르 하라는 직접 만난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를 때로는 직설적인 언어로 때로는 상징과 은유의 시어로 표현했고,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에게 노래는 위로였고 격려였으며, 군부독재를 겨냥한 아름다운 무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소통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중들의 소리를 가슴 깊이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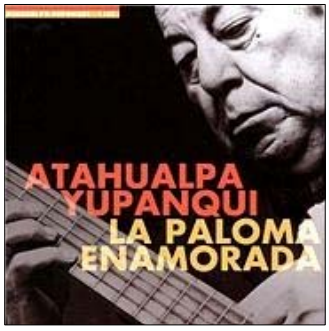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신음하는 민초들의 희망과 절망, 좌절과 아픔을 진실하게 들어주는 사람, 음유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 가수가 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음유시인 아타왈파 유팡키이다. 빅토르 하라는 창조적인 소통능력을 중시했지만, 이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유팡키에게 음유시인이란 “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아르헨티나의 전역을 여행하면서 지방을 떠도는 유랑시인(payador: 아르헨티나 카우보이, 가우초 시인을 일컫는다)의 즉흥시에서 유래한 노래와 농촌지역의 민요 가수들의 노래를 수집하면서 보냈다. 유팡키는 음유시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바람은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소리와 인간과 산과 새들이 부르는 모든 진실의 소리들을 보이지 않는 커다란 마법 주머니에 빨아들인다. 그리고 그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져 그만 바늘땀이 터지고 말 때, 멜로디 한 조각, 한 소절의 후렴구, 우아한 휘파람 소리, 속담 한마디, 구성진 노래 속에 숨어있던 심장 한 조각, 민요 가락 끝에 묻어나는 날카로운 소리의 울림이 하늘 가득 쏟아져 내린다. 풀잎 위에는 잃어버린 소리 조각들이 남아 이슬처럼 맺히고, 간절한 기도의 염주 알 같은 소리 조각들은 시간과 망각과 폭풍을 이겨낸다. 어떤 소리조각은 오히려 세월의 풍상 속에서 더욱 영롱한 빛깔을 내기도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판을 걷거나 햇볕 내리 쬐는 계곡을 지나 숲 속의 오솔길을 걷는 소년들, 혹은 시냇물이나 모닥불 가에 앉아 놀고 있던 소년들이 그 조각을 발견한다. 그늘 진 운명의 사람들, 팔뚝을 걷어 올린 인부들, 동굴 속의 광부들, 어둠 속에서 달려가는 마부들, 긴 밤을 지새우는 음유시인들이 그 조각을 발견한다. 그래서 음유시인은 바람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한다. 바람 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유팡키는 아르헨티나의 대지와 민중들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바람의 방향과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운명을 읽으며 바람이 들려주는 시를 받아 적기 위해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청년시절의 유팡키는 인부, 소몰이꾼, 목수, 교사, 신문기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특히 20대가 되어서는 아르헨티나의 농촌지역과 안데스 지역을 방랑하며 전통음악을 채보했다. 이런 경험으로 유팡키는 민중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클래식 기타와 작곡훈련을 통해서 그만의 '민요' 세계를 구축했다.

이런 노력으로 유팡키의 음악은 1940년대와 50년대 아르헨티나 농촌의 삶과 문화를 도시로 연결해주었다. 이베리아반도와 원



주민의 감수성이 녹아 든 농촌음악의 전통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은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Violeta Parra)와 쿠바의 카를로스 푸에블라(Carlos Puebla)에 비견된다.

원주민 혈통의 아버지와 바스크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팡키는 아홉 살 무렵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 북부의 안데스 산맥 끝자락의 원주민 마을 투쿠만으로 이사해 가난한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원주민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민속 문화의 보고였던 투쿠만에서 그는 십대시절 아버지를 잃고 농장과 목장에서 고된 일을 해야만 했으나, 이곳에서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원주민의 고뇌에 눈뜨게 되었다. 투쿠만에서 보낸 시절은 아르헨티나 기층 민중들의 삶을 온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린 시절 그가 보았던 투쿠만의 달은 그 옛날 대지와 자연의 일부로서 평화롭게 살아갔던 원주민의 '꿈'을 들려주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아르헨티나 전역의 이름 모를 들길과 산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투쿠만에 떠 있는 달은 벗이 되었다.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에 낙담하고 짙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투쿠만의 달은 쓸쓸한 빛으로 그를 감싸주었다.

내가 달을 향해 노래하는 것은
단지 달이 밝게 빛남을 기리자는 것이 아니네
달이 나의 오랜 발자취를 알고 있기에
나는 노래한다네
아, 투쿠만의 달님이여
칼차키 계곡의 작은 북소리여
타피의 좁은 길에서 만나는
가우초의 길동무 달님이여

희망과 고통으로
아체랄 평원에서
나는 그 밝은 달을 보았네
갈대밭에 입 맞추네
– ‘투쿠만의 달’

유팡키의 음악은 발성 스타일에 그리 개의치 않는다. 단순한 형식으로 바람에게 또는 우연히 만나게 된 친구에게 던지는 화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형식에 드러나는 고유한 특징들과 색깔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형식에 적절한 언어를 골라내는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감을 드러내는 내면적인 노래인 비달라(vidala)를 부를 때에는 인간의 영혼을 명상의 길 위로 올려놓는 탁월한 노랫말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이끌어 낸다. 그는 누구보다도 라틴아메리카인의 내면세계를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시인이자 가수, 작곡자였다.

때로는 내가 내 그림자를 따르고
또 때로는 내 그림자가 내 뒤에서 걷는다
불쌍한 것, 만약 내가 죽어 없어져 버린다면
그땐 누가 함께 걷게 될까?

포도주가 그냥 엎어진 게 아니야
내가 일부러 쏟은 거야
내 그림자가 그걸 마시네
인생은 우리 둘의 것이야

이보다 더 고생을 하며
몸을 웅크린 채

말없이 동행하는 그림자를
찾을 수는 없으리라

어둠이 뼈 속까지
나를 적실 때
그림자여, 버려두고 가야 할 것을
나를 대신해 잘 돌봐다오
— '나의 그림자를 위한 비달라'

아르헨티나의 농촌 지역을 바람처럼 떠돌면서 인적이 드문 작은 시골길에서 만난 작은 돌 하나, 풀 한 포기에서 민중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키워간 유팡키는 1926년에 만든 그의 처녀작 '원주민의 길'(Camino del Indio)에서 구도자적인 자세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들려주고 있다.

원주민의 길
별들과 골짜기를 이어주는
원주민의 길

파차마차 산 깊숙이 그늘이 드리워지기 전
오랜 나의 선조들이 남에서 북으로 걸어간 길

산에서 노래하고 냇물에서 울고
원주민의 고뇌는 밤에 더 깊어가네

길은 알고 있다. 아가씨의 이름을
산에 피어오르는 가슴 아픈 산의 노래 소리를

길은 탄식한다. 사람과 사람을 멀리 떼어놓는 죄의 습성을
산에서 노래하고 냇물에서 울고

길마다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그늘이라도 주고 싶다네
— ‘원주민의 길’

유팡키는 가장 짙은 어둠 뒤에 푸른 질감의 희망으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깊은 새벽의 여명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영원한 추방.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을 두고 먼 이국 땅 프랑스에서 죽기까지(1992년 5월 23일) 유팡키가 사랑한 것은 조국의 자연과 역사였다. 운명처럼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던 가난한 마음의 유팡키가 사랑한 또 하나의 자신은 바로 기타였다. 고독으로 자신을 훈련하며 인내로 자신의 삶을 위로할 때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내가 세상에게 물어보면
세상은 날 속일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난 변하지 않는다고 모두들 믿고 있지

긴 밤을 지새며 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네
이 밤은 왜 이다지도 길으냐
기타야, 네가 말해다오

어제의 부드러운 진실이
오늘은 잔혹한 거짓말로 변했네
비옥했던 땅조차도
모래땅으로 변하네

긴 밤을 지새며 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네

이 밤은 왜 이다지도 길으냐
기타야, 네가 말해다오

인간들은 죽은 신들이지
이제는 허물어지고 없는 신전에 살았던
그들의 꿈조차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남은 건 희미한 그림자 하나뿐.....

긴 밤을 지새며 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네
이 밤은 왜 이다지도 길으냐
기타야, 네가 말해다오
— '기타여, 네가 말해다오'

아타왈파 유팡키라는 이름은 잉카제국을 건설한 안데스 고원의 케추아족의 말로, '멀리 와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스페인 정복자들에 대항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처형된 잉카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기도 하다. 엑토르 로베르토 차베로(Hector Reberto Chavero)라는 본명을 버리고 '아타왈파 유팡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원주민의 고뇌와 탄식을 대변하는 음유시인으로서 평생을 지고 가야할 역사에 대한 책임과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소통의 단절로 고통스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요즘, 자연의 언어를 노래하며, 불의한 것들과 맞서 고통과 분노를 가슴속에서 거르고 다시 녹여내어 영혼을 움직이는 언어로 노래했던 아타왈파 유팡키가 더욱 큰 존재감으로 다가온다.□

심영보 – CBS PD